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다시 무욕도

이 무욕도를 떠나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난 날의 동료들과 헤어진 뒤 아직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인담과 우녀 그리고 파현 수원 수월 다섯사람이었다.

인담이 바다 건너 육지에 속해 있는 안면도의 관목용(棺木用)의 해송 숲 언저리에서 한 남루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흥 사람 1백명미만은 거느릴 팔짜로 군, 겨우 1백명을 거느린 왕도 왕이리만... 내가 지금 왕의 형체에 이르러있을 처지이지"하고 그 뜻까지 잘알 흐르는 누더기를 일은 삼반산을 남쪽 앞드리는 것이었다.

그때 그 기이한 노인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였던지는 기억이 없거니와 그 뒤 인담은 이 섬으로 건너와 1백명의 10분의 1인 10명의 대중을 이루어 제법 수행자들의 도량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제 민화와 관보장이 남작 그리고 합두놀이 무전들은 이곳에 어떤 자취도 남기지 않은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동료들의 하투하투와 무관하였다.

무욕도는 하나하나 극적으로 떠나는 동안 마치 지난 날의 무인도와도 같은 지경이었다가 차츰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만 무전과 함께 이 섬으로 구축되었던 파현이 무전이 세상을 떠난 뒤 거의 누워있는 상태로 사름시름 앓다가 얼마전부터 지팡이에 의지하여 여기저기 거닐어 보기도 하는 것이었다.

수원이 그런 파현을 보고 한 마디하는 것이었다.

"자 꼭 짚은 거위 좀 보아"

수원의 말에 수월도 한 마디 거들었다.

"우리 두 사람도 들 중의 누가 저런 신세가 될지 모르지."

"그렇다면 수월! 자네도 이곳을 떠날 생각에 비를 뿌렸단 말인가?"

"씨를 뿌리는 일이야 나 뿐이 아니었지. 인담스님이나 우녀스님 그리고 저 거위나 우리 둘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

"머릿집 황해를 건너 여기까지 파내려온 참나라 고소를 먹었지? 그것이 참나라 산 동반도의 바닷가에서 여기까지 파내려오는 동안 잔뜩에 떠있어서였는지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으로 싱싱하기까지 해서 그것을 인담스님이 먹어보고 우리나라 고소보다 더 진한 고소맛이 난다 하겠지. 자네! 그 고소 먹은 뒤로 자꾸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상한단 말이다."

이런 말에 수월이 정색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무욕도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 단 말이에요."

수원이 무슨 흥판자나 하는 듯이 이런 말을 꺼낸 수월을 더욱 쓰아하게 여기고 있었다. 마치 둔탁하게 날아가는 공이 아주 힘들게 날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그게 무슨 소리인가? 도대체."

"그런 느낌이 들 따름이야."

"여보게 수월! 자네만은 평상심(平常心)의 사람이 되어주게. 엉뚱한 생각을 자버리고 말아라."

저쪽에서 돌아오는 파현이 8월말의 하얀 햇빛 아래에서 아주 비현실적인 환영(幻影)으로 보였다. 그 뿐 아니라 그의 힘없는 걸음걸이에는 도무지 중력감이 없어서 마치 유령의 무중력 상태와도 같이 땅 위에 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이제 파현은 그의 목소리까지 달라져서 마치 이 세상과 저 세상사이의 변성기(變聲期)라든가 들어선 것 같았다.

수원이 수월에 대한 관심을 파현 쪽으로 옮겼다. 그가 가까이 온 파현에게 물었다.

"파현수좌는 요즘 우리와 상종을 하지 않을 작정으로 자내는 것 같어요. 이해는 어지간히 품도 화복되었는데..."

파현의 웃음에는 참박한 기색이 서려있었다. 가슴팍의 팔에 짚은 곳이 아릿아릿했다. 바닷바람이 워낙 험참기 때문에 팔이 나올 수 없는데도 그에겐 품의 식은땀이

활한 충고를 받고 있었다. 고려의 시인 임춘의 문집 따위를 경전보다도 더 애지중지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선(禪) 수행에서 그런 문자 따위가 마군(魔軍) 밖에 더 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파현 인담은 방선 뒤에에는 그동안 벽장 안에 두었던 서하문집을 꺼내어 혼자 읽는 일이 잦았다.

이런 일도 결국은 잠든 수월들에게 알려졌고 다른 처소에서 지내는 우녀에게까지 알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니 인담 자신이 그녀의 처소로 갔던 일도 있었다.

향방중의 일이었다. 잠든 우녀를 어둠속에서 그 어둠 자체를 들고 내려다 보는 인담을 우녀가 잠을 깨어 알아볼 수 있었다.

"조용히 나가세요. 스님."

그러나 인담은 어둠 속에서 무척 서 있을 뿐 조금도 움직일 줄 몰랐다. 우녀가 문을 탁 쳐서 파도소리를 방안에 한층 더 큰소리로 채웠다.

그때였다. 어둠이 바깥의 파도가리라 하얀 빛에 의해서 약간 막혀진 방 안에서 안이있는 우녀에게 뒤로부터 인담의 몸이 허물어져내린 것이다. 우녀는 인담이 하는데

들었던 것이다. 그때 파현이 인담과 우녀에게도 무욕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에 인담이 깜짝 놀랐다.

"도대체 파현수좌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인담스님께서 공부 대신 시나 읽는 것도 그런 징조인 줄 압니다."

"무엇이라고?"

"제 말이 헛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도 용맹정진을 잘 해내던 파현수좌인데... 아무리 몸이 허약하다하더라도 헛것이 보이는 일은 우리 도량에서는 빨리 없어야 할 일이요. 그건 새(邪)인득."

"큰바나 큰 바람을 앞두고 아주 작은 바람들이 그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사뭇다운 말인가?"

파현의 말에는 뜻밖에 만만치 않은 거부와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시를시름 읽었던 것은 일종의 화두병(話頭病)이었고 일종의 무병(無病)이기도 하였다. 화두병이란 화두(火頭)를 단정(端正)으로 내리지 못한 상태의 열이 머리로 올라와서 머리 전체를 열증으로 덮어버리는 화두꽃을 일컫는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거의 절망적으로 꺼안았지만 그 꺼안음은 지극히 일방적이었다



43

## 파현은 인담과 우녀에게도 무욕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담스님께서 공부대신 시나 읽는 것도 그런 징조인 줄 압니다"

할 줄 모르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의 몸은 그의 마음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른다.

그런 파현이 말 대신 고개로 사름을 지으며 수원의 말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파현수좌는 무전스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라고 수원이 다그쳤다.

그 때 파현은 전혀 다른 태도를 하는 것이었다. "나 저쪽에 가서 죽은 갈매기 두 마리들 보고 왔어요. 그것들을 땅에 묻어주고 왔어요. 불쌍한 것은 인간 뿐이 아니라 모든 유정(有情)의 중생들이... 다 불쌍해서..."

그들에게 인담이 나타난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중입니까?"

그러자 수원도 파현도 싱겁게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얼마전부터 인담은 우녀로부터 매우 신

로 내버려 두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거의 절망적으로 꺼안았지만 그 꺼안음은 지극히 일방적이었다. 우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 마디 남겼다.

"인담스님은 육조(六曹)에 나가서 서로 원수가 된 파도와도 겨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에 인담이 꺼안은 팔을 풀었다.

"아니오, 나는 그런 당파노릇보다 시를 읽는 일이 재력이요."

"이도 저도 이 도량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인담은 임춘의 시 읽기에 버릇이 들었고 그 버릇을 알게 된 우녀가 그런 인담에게 서하문집을 아예 불질러버려야 한다고 다그친 적이 있었다.

바로 두 사람이 주고 받는 말을 파현이

로 덮어버리는 화두꽃을 일컫는다.

그것은 화두를 놓아버려야 치료될 수 있거니와 이 화두병으로 속진 사람도 임춘의란 뒤의 해금강(海金剛)의 한 입자에서 생겨났던 것이다.

또한 파현의 무병이란 무당의 산이 내리는 동인의 방을 일컫는다. 이 무병을 앓고 난 뒤로 영상이 밝아져서 먼 장래의 일까지 알아맞추는 것이다.

지난 날 배를 타고 다니던 뱃사공 시절에도 파현은 사나운 파도에 죽을 고비를 맞았는데 그런 고비와도 짝을 맞추는 것처럼 무병이 돌발해서 마구 파도에 맞치고 있는 배의 갑판 위에서 돛대를 붓잡고 마구 울부짖었던 것이었다.

그리고보니 그가 무욕도 사람들에게 구출되던 그 년(年)의 위기에서 밤바다의 어둠 속을 헤엄칠 때에도 작은 규모의

(開藥一葉去 海上奇蹟生)

또 한 구절이 같은 시에 들어있어 그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는 비록 나보다 적으나 도를 듣기는 곧 내 형이거나 이별한에 이르러 내게 말하되 자네가 가거나 나도 또한 가리라 (與我同離少 聞語即同去)

이는 인담이 파현을 두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인담이 혼자 소리쳤다.

"파현수좌가 견성(見性)을 한 것인가?"

그림·조향숙

성아출판 TEL: 778-6825-7 FAX: 778-6828

##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2장경

##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부다에서 양반에 도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이 호소하여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자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다녔고 당신과 함께 참을었으며, 당신과 함께 공식을 익혔고 당신과 함께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내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부다에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때의 빛이 아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나 불기를 내라, 아난.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부다의(Aspa Deepa Thava) -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본문 중에서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분별 충고를, 나는 조약돌을 본다. 그 보다는 향한다.

그대는 삶의 해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고 있는 어린아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락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그러나 부심에 차려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말치 버려서는 안 된다.

-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극히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무려 향하여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비판하니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책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황소에 그대 자금을 걸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가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 라즈니쉬 경의 / 황용우 이경복 옮김  
신국문 전 2권 / 각권 1,500원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징표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부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면서도 읽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부다의 42장경을 함축하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경험,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걸작이다.